

天正六年十一月十五日

朝

鮮

十一月號

大正六年十一月十五日第三種郵便物認可
昭和七年十一月十五日發行（每月一回十五日發行）
第一百八十一號

△寄稿歡迎▽

種	類
一、論文	(産業、社會、教育、宗教、地方行政等に關한 것)
一、史談、傳記、模範村紹介	
一、感想文、紀行文、隨筆	
一、民謡・童謡	(創作이나傳來하는 것)
一、詩、詩調、漢詩	
一、短篇小說	

◎投稿注意事項◎

期限 每月十五日

用紙 반드시 原稿用紙를 使用할 일

◇誌上 匿名은 無妨하나 原稿에는 반드시 第一頁右端에 住所姓名을 明記할 일

◇誌上 掲載與否의 權과 添削權은 編輯室에 在하고 原稿는 一切 返還치 안 할 일

◇原稿는 朝鮮總督官房文書課「朝鮮」編輯室로 付送할 일

本月號 定價金十五圓 (郵稅一錢)

本定價表	誌表
一冊 數 定 價 郵 稅	一冊 數 定 價 郵 稅
一冊 十五錢 一 錢	一冊 十五錢 一 錢
一箇年 一圓八十錢 不 要	一箇年 一圓八十錢 不 要
但臨時增大號를 發行할 時는 定價의 倍額	但臨時增大號를 發行할 時는 定價의 倍額
□ 注文은 一切 販賣所로 할 일	□ 注文은 一切 販賣所로 할 일
□ 送金은 振替口座京城四〇番을 利用함이 便利함	□ 送金은 振替口座京城四〇番을 利用함이 便利함
□ 注文은 先金에 限함	□ 注文은 先金에 限함

廣告料

一 等 級	一 頁	半 頁
二 等 級	二十圓	十二圓
三 等 級	十五圓	八圓
▲種類에 依하야 掲載을 謝絶함도 잇습		
▲申込은 一切 朝鮮印刷株式會社로 할 일		

昭和七年十一月十三日印刷
昭和七年十一月十五日發行

發行人 朝鮮總督官房文書課長

發行所 朝鮮總督府

京城府蓬萊町三丁目六十二番地

印刷所 朝鮮印刷株式會社

京城府蓬萊町三丁目六十二番地

販賣所 朝鮮印刷株式會社

電話本局

振替口座京城四〇番



朝鮮〔조선〕

第十六卷 第十一號 目次〔第百八十一號〕

總口

◇昌慶苑의菊花
◇朱乙의天鷄峯

農山漁村振興에就하야

總督·宇垣一成(一)

產金獎勵에對하야

鐵務課長·上瀧基(五)

農村救濟에對하야

(一〇)

◇京畿道參與官...金東勳

◇黃海道參與官...張錫元

朝鮮의鹽業

專賣局·碓井忠平(三七)

自作農地設定計畫에對하야

總督府技師·石塚峻(四四)

高麗初期의圖識及神秘思想

李丙憲(五四)

滿洲族名考

編修書記·金昌鈞(六三)

三國時代의文學

安廊(六七)



農村問題座談會

(七一)

出席者

元榮	常柳	熙昇	權五	瓚
朴濟	煥權	鎔澤	朴汝	澤
元仁	常李	聖煥	任興	宰
				李鍾駿
				吳晴

家庭衛生

家庭讀本

無病健康法十個條

醫學士李鍾植(八三)

李永憲(七七)

文苑

◇詩 ◇童謠 ◇漢詩

(八六)

佛敎와 人生

李智先(九〇)

佛敎의 女性觀

金泰洽(九五)

잊지 못할 그 時節 (追憶)

嚴波(一〇一)

寫眞 (創作)

李海文(一一五)

漫談 新舊式縱橫觀 (二〇)

郭昌鉉(一二〇)

雜報

◇國民精神振作에 關한 詔書 煥發 記念日 (一二六)
◇時局 匡救 講習會 (一二八)

◇家畜傳染病豫防令 發布 (一二六)
◇全鮮刑務所長會議 (一二八)



朝鮮의鹽業

確井忠平

一、鹽의需給狀態

鹽은人類의生存上及化學工業의原料로서 他에代用品이없
 는絶對需要品임은 贅言할必要도없다。그러나必需品이라할
 지라도 그다지多量으로 食用되는것도아니다。工業鹽은別
 個로하고 食用으로는一人의 一年使用量이大概一定되야
 統計上으로보면 約二十斤의鹽을要한다。此를反對로利用하
 야 正確한戶口調査가施行되지못한地方의 人口를推定하는
 資料가되는境遇도잇는듯하다。卽其地方의鹽의總消費量을調
 査하야 此를一人當推定消費量으로除한數字로써 一應其地
 方의人口로推定하는것이다。

그런데 朝鮮에서는 此食糧用鹽이年々約五億四千萬斤이
 消費되는데 此를朝鮮總人口二千萬人에割當하면 一年一
 人平均二十七斤이되즉 매우過多히食用하는세음이다。鹽을

充分히攝取하면 長時間激烈한勞働에도堪耐하야 疲勞가덜
 하다하나 그러타하면朝鮮在住者는 모다勤勉하다는例證도
 될는지? 如何間朝鮮의一人當消費量이比較的多量인것은事
 實이다。此는朝鮮人이맹고편것을 嗜好하는習性에도依하려
 니와 一面으로朝鮮에는 我版圖를通하야 又隣接國에比하
 야 鹽價가太廉한것도 그一因이될듯하다。또朝鮮人이苦
 草를길것은 氣候風土의關係도잇스려니와 昔日鹽이不足하
 야高價임으로 그代用으로 需要가되얏다는傳說까지잇도록
 昔日에는鹽이高價오不足하얏스나 當時에比하면 現在消
 費者의受하는便益은 雲泥의差가잇다할것이다。

次에朝鮮의消費鹽의 種類別數量을보면

天日鹽	四億八千萬斤	天日鹽그대로消費되는것	四億二千萬斤
再製鹽이된것			六千萬斤
精製鹽食卓鹽이된거			十六萬斤

在來煎熬鹽六千萬斤

인데 此消費鹽의 大部分을 占한 天日鹽은 或實見치 못한 이도 있슬는 지모르나 結晶粒이 粗大하고 色相이 泥色인 것이 만라我等家庭에서 常用하는 것은 再製鹽인데 此는 天日鹽을 一應溶解하여 釜로 다시 煎한 것이다。在來煎熬鹽도 結晶粒은 再製鹽과 大體 同樣이나 製法이 拙劣하여 夾雜物이 만흐며 色相도 劣等인 것이다。

又鹽의 用途別使用量을 보면 朝鮮같이 工業用鹽의 需要가 急는 곳에는 其大部分이 沈菜用及 醬油製造用으로 總需要量의 八割强을 占한다。其他稍多한 것은 漁業用鹽인데 總量의 一割弱이다。從하여 鹽의 販賣도 季節的인 것이야 沈菜用으로는 十月、十一月、醬油用으로는 三、四、五月로 거의 大部分의 鹽이 販賣된다。

次에 此需要鹽五億四千萬斤의 供給狀況을 보면 朝鮮產鹽은 專賣局鹽田에서 生産되는 天日鹽二億斤 民間에서 生産하는 在來煎熬鹽六千萬斤에 不過한 故로 不足되는 二億八千萬斤은 輸入鹽에 仰치 아니치 못하는 狀況이다。그가 主要한 供給地는 關東州及 山東省인데 此兩地에서 各々一億斤前後 其他는 臺灣及 靑島에서 輸入되는데 此等輸入鹽은 總히 天日鹽이다。

如斯히 朝鮮의 需要鹽半量以上을 輸入鹽에 依한다는 狀態

는 아모래도 汎然看過치 못할 問題이다。朝鮮의 鹽田擴張은 産業開發、正貨擁護、窮民救濟等 온갖 視點으로 보아 그 必要함은 勿論이오 單히 鹽의 供給及 鹽價의 點으로 볼지라도 帝國版圖內의 需要는 工業鹽을 爲始하여 一般的으로 自然增加됨에 不拘하고 產地는 所存品을 一掃하여도 오히려 需要에 應치 못하며 關東州에서도 着々鹽田擴張의 計畫을 進行하는 狀況이며 又朝鮮에서는 近來此品不足과 爲替와 關係上 外鹽을 購入함은 著히 不利케 되얏고 專賣局의 鹽業收入에도 輸入鹽에 만對하여는 殆히 赤字를 내이는 狀況이다。鹽價의 安定遞減을 計하며 供給을 確保할 永久對策으로는 엇지 하던지 朝鮮의 鹽田을 擴張할 外에 他對策이 없다。

二、鹽務에 關한 制度

朝鮮의 鹽務에 關한 法令으로는 昭和五年四月에 發布된 鹽의 輸入管理에 關한 法令이 있슬 뿐인데 此에 依하면 鹽은 政府及는 政府의 命을 受한 者가 아니면 輸入함을 得치 못하고 又政府의 命을 受하여 輸入한 鹽은 全部 政府가 此를 買收하기로 되어 있다。鹽에 關한 事務는 專賣局에서 取扱하고 且 内地에서나 臺灣에서도 鹽專賣를 施行한 關係上 一見에 朝鮮에도 鹽은 專

賣인 듯도 하지 마는 法令上으로는 專賣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從하여 何人이 鹽田을 開設하던지 鹽을 販賣하던지 自由인 터이다。그러나 鹽田을 開設하려면 干潟地를 利用할 수 밧게 업스즉 公有水面埋立令에 依하여 官의 許可를 要하게 됨으로 鹽田의 開設을 計劃할 지라도 此公有水面埋立令에 依한 利用의 許可를 得할는지 못할지는 別問題이다。—— 現에 本府의 既定方針으로 民間에는 天日製鹽事業을 爲한 公有水面利用에 出願에 對하여는 許可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다。

如斯히 法令上으로는 鹽은 專賣로 되어 있지 아니하나 前述한 바와 같이 輸入 鹽은 總히 政府의 手로 賣捌되며 又 朝鮮에 는 天日鹽田의 經營者는 政府以外에는 업슴으로 事實上 天日鹽은 政府의 一手販賣가 된 터이라 專賣의 定義를 某貨物의 販賣를 政府에서 獨占함에 잇다 할진대 天日鹽은 事實上 政府의 專賣에 屬하얏다 하야도 可할 것이다。尙 煎熬鹽은 全然 政府와 는 關係가 업시 生産、販賣가 모두 自由이나 其數量에 자못 微々함으로 鹽價等도 政府販賣鹽에 隨從할 수 밧게 업는 狀況이다。如斯히 政府는 事實上 朝鮮의 鹽供給及 價格에 對하여 統制權을 把握하고 잇는 터이다。

專賣局에서 는 그 鹽田에서 生産한 鹽及 輸入 鹽을 新義州 仁川、群山、木浦、釜山、元山、清津의 八個所의 出張所에 適

當配分하고 全鮮에 配置한 賣捌人으로서 하야 販賣케 한다。專賣局의 拂下價格은 各地에 若干差異가 잇스나 平均百斤當約八十錢이다。此를 内地、臺灣에 比較하면 約三分의 一에 當하고 隣接滿洲에 比較하면 約十分의 一이다。此原因은 政府에서 鹽業의 收支에는 收益을 舉할 目的이 아닌 것과 鹽田이 政府의 所有에 屬하야 中間收利者가 업슴과 原產地로부터 安價로 天日鹽을 輸入하는 것과 又 鹽務에 關한 制度가 頗히 簡單且合理的으로 되어 事務費가 少額인 事等에 基因한 바 일것이나 此가 卽朝鮮鹽政의 特徵으로 恐컨대 理想的制度에 갓가 읊다 할 것이다。勿論 더욱 改良工夫를 要할 點도 만홀 것이나 制度의 大綱에 對하야는 以上과 如하다。

三、製鹽事業

(1) 天日製鹽

古來 朝鮮內에 쓰이는 鹽은 專히 沿岸各地에서 生産하는 煎熬鹽이 었는데 其製法은 大概 内地의 製法과 同一하얏다。그러나 煎熬製鹽은 燃料을 要하는 關係上 自然生産費가 高함으로 明治三十五、六年頃부터 漸次 安價인 支那鹽의 輸入을 誘致하게 되어 逐年 그 數量이 增加되야 왔슴으로 國家經濟上으로 보면 軍事上으로든지 容易한 問題가 아님으로 무슨 方法이던

鮮

下케하는構造가 되어 있다.漲水는 深約一寸으로 하는 것인데 漸次各段階에서 日射와 風力에 依하여 蒸發濃縮케 하여 「보메」氏比重二十一度乃至二十四度の 鹹水가 되는데 結晶池에 移하여 一、二日間適宜한程度로 結晶된時에 搔集하여 籠에 入하여 水分을 滴하게 하여 倉庫에 貯藏하나니 海水가 鹽이 되 기까지의 日數는 春秋二季는 十日로부터 十五日間가량이오 六、七、八三個月은 七日로부터 十日가량이 다. 結晶池의 地底는 普通콩크리트와 같이 練固한 土盤인데 一部の 結晶池에 는 甕의 破片과 數瓦를 敷한 것도 있다. 此에 依하여 土砂의 混入을 防하며 鹽의 色澤을 良케 함은 勿論 結晶을 速하게 하여 採 鹽量에 二割을 增收케 함으로 漸次全鹽田에 普及케 할計劃이다 其他鹽田에는 用水路、鹹水溜、雨水排水溝等이 있고 鹽庫는 結晶池와 堤防間에 設하여 此로부터 荷物自動車等에 依하여 陸路로 汽車에 連絡하는 것이나 大部分은 舁에 依하여 仁川又는 鎭南浦에 搬出되는 것이다.

如斯히 天日鹽은 燃料을 要치 아니하고 專히 自然力에 依하여 製鹽하는 것이므로 生産費가 安함은 勿論이오 品質도 純分即「鹽化나도리움」의 含有量、煎熬鹽에 比하여 優良하다. 但 結晶粒이 粗大하고 色相이 劣함이 缺點이나 此缺點도 粉碎洗滌이 依하여 簡單히 除去할 수가 있다.

(2) 煎熬鹽

煎熬鹽은 干渴地를 選하여 鹽田을 作하고 亦是 自然蒸發作用에 依하여 濃厚한 鹹水를 作하나 最後에 此에 火力을 用하여 煎熬함으로 此名稱이 있다. 煎熬鹽田에는 揚濱式과 入濱의 二方式이 있는데 朝鮮의 沿岸各地에 分行하는 것은 主로 揚濱式으로 原始的인 操作이 行하는 터이다.

朝鮮의 需要鹽은 元來此方法에 依한 製鹽으로 供給되야 그 旺盛時에는 鹽田面積이 三千七百町步、生産額三億斤에 達하여 重要産業의 一이 變했다. 그러나 燃料과 勞力을 多費하여 그 生産費가 嵩함으로 安價인 天日鹽에 壓迫되야 次第로 衰微하여 現在에는 慶尙南道金海郡、昌原郡、全羅南道務安郡、京畿道水原郡、咸鏡南道文川郡에 若干廣大한 鹽田이 有한外에 는 小規模의 것이 各地에 散在하여 그面積千七百町步、生産量六千萬斤에 不過하여 古來의 惰性的인 需要에 充함에 不過하다. 煎熬鹽은 專히 農漁村의 副業으로 行하고 專業으로 하는 大規模의 것은 없으며 將來에도 前述한바 事情으로 發達될 希望이 없음으로 政府는 積極的으로 此를 獎勵할 方法은 取치 아니하나 다만 消極的으로 此保護策을 講하는 터이다. 卽外鹽의 輸入管理制度를 布한 目的도 此에 在하여 鹽價의 急激한 低落及外鹽의 殺到에 依한 致命的인 打擊을 煎熬鹽業者에 게 與치아

니게하함이다。其製法の概要를述하면 海濱適當한場所에 地盤을固케하고其上에細砂를措布하여 海水를此에撒하여 海水의蒸發되는때를보아 此細砂를搔集하여 垂桶에入하고 海水를灌하여細砂에附著한鹽分이溶解케하여 濃厚한鹹水를 作하고 此를瀘箱에걸너 淸澄케한後煎熬하는것이다。

(3) 加工鹽

再製鹽、精製鹽、食卓鹽等이有한데 모다天日鹽을原料로 加工한것이다。再製鹽이라함은 天日鹽을海水에溶解하여 不溶解物을瀘하고 煎熬하는것인데 朝鮮에는全部가民營으로 港과都會地에散在하고 規模가稍大하게集團되기는釜山으로서 全製造高의半을占한다。業態는一進一退이나 近來繼續되는財界不況이累한배되어 安價인天日鹽에게販路를縮少되야 그다지發展되지못하는狀況이다。

再製鹽을撰別精製한것이精製鹽인데 更히此에約一과센트의炭酸막네시음을加하여 何時던지보송々々하여 濕氣가엄게한것이食卓鹽이다。廚房이나食卓에서 直接使用하는調味料로 體裁가조흔紙函이나 硝子瓶에入하여行賣한다。此는官營民營이並行하는바 그生産斤數는僅少하여 官製가十二、三萬斤 民業三、四萬斤에不過하며 官製는朱安에서眞空罐에依하여製造하는者로 品質에格別한差異가있는것이다。

(七〇頁의續)

池魚龍鳥不知滄海之浩大山林之寬閑乎吾將乘桴泛海

同卷 四十七

薛巖頭嘗與親友四人同會燕飲各言其志巖頭曰新羅用人論骨品苟非其族雖有鴻才傑功不能踰越我願西遊中華國舊不世之略立非常之功自致榮路武德四年潛水海舶入唐』

그러나비록半島國民性은 進取氣像이적을지라도 感想의 情緒에잇서는 理想의渴仰을잊지아니하여 優美技巧의華麗한形式을取함이있다 이는無他라 風土氣候의溫色이잇서 風景이庭園의으로되매 人物은모도纖細華美한女性的으로되니 故로神을爲할지라도 太陽을國祖요하여 神宮을奈乙(날)에두고 國이란名詞도(나라)라하며 最高位の稱謂는 日神을標象하다 이光明한太陽을崇尙함은 太陽性的技巧의藝術性을發揮함이니 彼北方人の穴로외精神標象을삼은라 그陰性的과는相反의性質이있다。

於是乎南方半島의文學은 擬古主義로外舊法權威를尊重하여 忠誠節義의情調가잇고 形式은都會的의으로되 技巧優美를다하여가는 風格이잇나니 이것이南方文學의特色일새 優美의風과道義의情은 萬事に넘쳐잇더라。